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적 기회 구조*

— 웨이징성(魏京生)의 《탐색(探索)》과 바이화(白樺)의
<슬픈 사랑(苦戀)>을 중심으로

김도경**

<목 차>

1. 개혁개방 시기의 한 가지 모순
2. 연구방법으로서의 '뚜꺼운 기술', 그리고 '기회 구조'
3.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적 기회 구조
 - 3.1 1979년 웨이징성의 《탐색》 발간
 - 3.2 1981년 바이화의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
4. 결론을 대신하여

1. 개혁개방 시기의 한 가지 모순

'사상해방'의 차원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살펴보면 한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분명 한 쪽에는 어떤 '변화'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1978년 3월 중공중앙은 전국과학대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이 제일의 생산력"임을 선포하였고¹⁾, 같은 해 있었던 진리표준토론은 "실천이 진리 검증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공리(公理)를 만들어냈다.²⁾ 비슷한 시기 베이징시의 시단(西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교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임.

**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교육과 조교수

1) 鄧小平, <在全國科學大會開幕式上的講話>, 《鄧小平文選·第2卷》(北京: 人民出版社, 1994), 85-100쪽;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劉青峰, <二十世紀中國科學主義的兩次興起>, 《二十一世紀》(香港)1991年4月號 등을 참조.

單)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대자보들이 나붙었고, 이는 《사오(四五) 논단》이나 《베이징의 봄》, 《오늘》, 《탐색》과 같은 민간 출판물의 출현으로 이어졌다.³⁾ 1979년에는 당시로서는 전위적이라 할 수 있는 싱싱(星星) 미전이 개최되었고,⁴⁾ 1980년과 1981년에는 전국인대 및 지방인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운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당내 이론의 영역에서도 주의할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1983년 왕뤄수이(王若水)를 비롯한 일부 이론가들이 사회주의 체제 내에도 소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⁶⁾ 그리고 1984년에는 진관타오(金觀濤) 등이 주도한 《미래로(走向未來)》 총서가 출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미래로》 총서는 《문화: 중국과 세계》 및 '중국문화서원' 등과 함께 1980년대 중반의 '문화열(文化熱)'을 주도하였다.⁷⁾

그러나 같은 시기 다른 한 쪽에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진리표준토론이 '사상해방' 운동으로 인정된 것은 1978년 12월에 있었던 11기 3중전회였는데, 그 이듬해 4월에 있었던 이론공작무허회(理論工作務虛會)는 사회주의와 무산계급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毛澤東) 사상만을 중공중앙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⁸⁾ 1980년 초에는 11기 5중전회가 당시 중국 헌법이 보장하

2) 안치영, <1978년 진리표준 토론과 그 정치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제13권 1호 (2004); 沈寶祥, 《真理標準問題討論始末》(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8) 등을 참조.

3) 김도경, <1970년대 말 천얼진의 '무산계급 민주혁명'을 논함의 담론 맥락>, 《중국현대문학》 66호(2013); 高阜, 《後文革史》(臺北: 聯經出版公司, 1999), 제5장; 許行, <中國民間的屈起和掙扎圖存>, 《中國民間刊物彙編》(香港: 香港觀察家出版社, 1981) 등을 참조.

4) 이주현, <後文革시대(1977~1984)의 중국현대미술: 星星畫會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호 (2010) 등을 참조.

5) 조영남, 《개혁과 개방 I》, (서울: 민음사, 2016), 420-428쪽 참조.

6) 若水, <爲人道主義辯護>, 《新華文摘》 1983年 第3期. 이에 대한 설명은 심혜영, <중국의 80년대 초기 휴머니즘론 — 왕뤄어웨이(王若水)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34호 (2000); 김은수, <개혁개방 초기(1979~1982) 중국 공산당의 부르주아 자유화 논쟁>, 《역사와 담론》 84호 (2017) 등을 참조.

7) 문화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陳來, <思想出路的三動向>, 《八十年代文化意識》(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6) 등을 참조.

8)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 《鄧小平文選·第二卷》(北京: 人民出版社, 1994), 158-

던 ‘대자보’의 권리를 취소시켰고⁹⁾, 앞서 언급했던 기층의 민간 출판물도 이 시기를 즈음해 모두 폐간되거나 정간 당했다. 1981년에는 바이화의 창작 시나리오 <슬픈 사랑(苦戀)>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 운동이 일어났고, 1983년에는 ‘정신 오염의 정화(清除精神汚染)’라는 이름으로 왕뤄수이나 저우양(周揚)에 대한 비판 운동이 전개되었다. 분명 그 시작은 ‘사상해방’이었는데, 정작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중공중앙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도리어 이데올로기적인 ‘통제’에 가까웠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중공중앙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사상해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어느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반대로 당시 중공중앙은 명확하게 이데올로기적인 ‘통제’를 시도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의 ‘통제’ 작업은 이전과 달리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일까?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통제’와 ‘변화’가 어떻게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나란히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중국의 개혁개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문화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문체의 출현, 새로운 사상의 등장, 새로운 제재의 채용 등은 모두 문학사가 중시해야 할 어떤 ‘변화’에 속한다. 그런데 이 변화들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 그 조건이 때로는 새로운 작가 집단의 출현일 수도 있고¹⁰⁾, 새로운 사조의 유입¹¹⁾이나 새로운 유통 및 배포 시스템의 형성¹²⁾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이든 사회적 조건과 상관

184쪽. 이에 대한 설명은 조영남, 앞의 책, 405-420쪽 등을 참조.

- 9) Chen Fong-ching & Jin Guantao, 《From Youthful Manuscripts to River Elegy》(Hong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7), 30-35쪽 참조.
- 10) 송원(宋元) 시기 화본소설의 형성을 ‘중간층’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등을 참조.
- 11) 옌푸(嚴復)나 린슈(林紓)의 번역서가 신문학 형성에서 끼친 영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없는 '변화'는 기본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 우선 물질적인 차원에서, 문화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대단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개인이 혼자서 즐기는 '변화'라면 모르겠지만, 사회 구성원이 함께 향유해야 할 '변화'라면, 그 자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원의 동원 여부가 '변화'의 사회적 조건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변화'는 이전의 '선과 악', '성(聖)과 속(俗)',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이항 대립을 위반하면서 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까지 살인이 죄였는데, 오늘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소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즉 오늘은 살인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특정 사회적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혹 이러한 입장이 개인의 능동성이나 적극성을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리어 이 글은 그러한 변화에서 개인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능동성과 적극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적 조건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베이다오(北島) 등의 지청 시인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 창작에 매진했지만, 그들의 시가 폭넓게 독자에게 전해졌던 것은 1970년대 말 《오늘》이 발간되면서부터이다.¹²⁾ 바이화의 시나리오 <슬픈 사랑>은 평닝(彭寧)의 영화 《태양과 인간》으로 실제 제작된 적 있지만, 현재 그 영화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¹³⁾ 진관타오는 1981년에도 총서의 출판을 시도한 적 있지만, 실제 출판에 성공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1983년의 《미래로》 총서였다.¹⁴⁾ 이 모든 사례들은 명확하게 개인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례들은 그 능동성과 적극성이 특정 조건에서 더 잘 발현되고 촉진되었음을 시사한다. 개

12) 덩정라이(鄧正來)는 베이징의 민영 서점의 등장이 국가의 지식 독점 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한 적 있다. 鄧正來, <市民社會與國家知識治理制度的重構—民間傳播機制的生長及其作用>, 《開放時代》 第3期(2000)를 참조.

13) Cheng Yingxiang, 《Dégel de l'intelligence en Chine, 1976-1989》(Editions Gallimard, 2004), 92쪽 참조.

14) 이 글의 제3장 참조.

15) Chen Fong-ching & Jin Guantao, 앞의 책, 제3장 참조.

인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문화의 변화에서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능동성과 적극성이 좀 더 쉽게 발현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혁개방 시기의 모순적인 상황은 문화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공중앙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문화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전 과정에서 그 어떤 개혁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새롭다'고 일컬을만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그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혹 새로운 작가 집단의 출현이 그 조건으로 거론될 수도 있지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활동했던 이들은 대부분 새로운 인물이 아니었다. 전국과학대회와 진리표준토론, 인도주의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전부터 체제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민간출판물을 주도했던 지청 출신들이 조금은 다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단의 존재 자체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모순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은 기껏해야 민간 출판물의 편집 정도였고, 그 시기도 1979년과 1980년의 2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때가 아니라 하필 그 2년이었다면, 새로운 작가 집단의 존재 이외에 다른 종류의 사회적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조건에서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물론 당시 중공중앙이 '사상해방'을 거론한 것은 사실이고, 과학기술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웨이징성이 민주를 다섯 번째 현대화로 제시해도 될 만큼 당시의 상징적인 의미 구조가 바뀌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다섯 번째 현대화를 제기하였을 때 3개월도 못 되어 공안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네 가지 기본원칙'이 '사상해방'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징적인 조건으로 개혁개방 시기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물질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설사 개혁개방 시기의 '변화'가 물적 조건이나 상징적 조건으로 설명된다 하더라도, 어째서 당시에 '통제'가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된다는 점이다. '변화'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의 메커니즘이나 '사상해방' 등의 상징적인 의미로 혹 설명될 수 있어도, '통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물적 조건이 변해서, 혹은 상징적 조건이 변해서 개혁개방 시기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통제'는 왜 나타나야 하는가? 만약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통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면, 이는 비대칭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변화'와 '통제'가 얼마든지 서로 호환될 수 있다면(혹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와 '통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문화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결국 개혁개방 시기의 모순적인 상황은 그 물적 조건이나 상징적인 조건에 대한 간단한 묘사로 설명되지 않는다. 개인의 능동성과 적극성도 이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시기의 모순을 통해 문화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해보겠다는 이 글의 의도는 결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변화'와 '통제'가 공존할 수 있었던 개혁개방 시기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화 변화의 메커니즘에서 간과되고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다.

2. 연구 방법으로서의 '두꺼운 기술', 그리고 '기회 구조'

이상의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분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 글은 당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1970년대 말에 등장했던 웨이징성의 《탐색》과 1981년에 있었던 바이화의 <슬픈 사랑> 비판이 그것들인데, 전자가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후자는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의 편의를 더해준다. 우선 둘 다 모두 개혁개방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이다.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1978년의 11기 3중전회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 직후에 일어났던 ‘변화’와 ‘통제’의 사례야말로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일 수 있다. 게다가 둘 다 모두 비슷한 시점에서 발생했다.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둘 사이에 내적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나는 기층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만약 같은 층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분석은 동어반복의 양상을 띠 확률이 높아진다. 상관성이 적은 두 사건이 분석 대상이 되어야, 둘 사이의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둘 다 모두 자신의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70년대 말의 《탐색》과 1981년의 <슬픈 사랑> 비판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의식이 비교적 뚜렷하기에, 어렵지 않게 그 둘을 각각 ‘변화’와 ‘통제’의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사례의 분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이다. 자연과학의 경우처럼 변량을 통제하고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면 현상의 원인을 지적하기가 한결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처럼 분석 대상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러한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비슷한 사례를 많이 모아야 하고, 그 사례에 대한 개별 연구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개별적인 사례 연구들은 잠정적으로 해석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판단과 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참작할만한 사실은 그러한 판단과 가치를 완전히 배제한 연구란 자연과학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⁶⁾

그런 점에서 클리퍼드 기어즈의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 해석을

16) 이에 대한 설명은 데이비드 블루어, 《지식과 사회의 상》(파주: 한길사, 2000) 참조.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연구에서 좋은 방향타가 될 수 있다. 기어츠는 눈꺼풀의 수축과 윙크를 구별하면서, 현상에 대한 '얇은 기술(thin description)'은 눈꺼풀의 수축만을 말하지만, '두꺼운 기술'은 윙크가 그 상황에서 갖는 의미(meaning)를 밝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락과 현장을 배제한 채 현상을 그리게 되면 단순한 눈꺼풀의 수축만 드러나지만, 그 맥락과 현장 속에서 현상을 서술하게 되면 윙크가 갖는 '공모'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겠지만, 그 해석이 '눈꺼풀의 수축'과 '윙크'를 구별시켜줄 수 있고 '윙크'의 의사소통 능력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점은 폄하될 수 없는 부분이다.¹⁷⁾

이 글이 《탐색》의 발간과 <슬픈 사랑> 비판에 접근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동일하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 두 개의 사건을 바라보면, 그저 1979년에 웨이징성이 《탐색》을 발간했을 뿐이고 1981년에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출현과 비판의 맥락에 주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그 출현과 비판의 맥락을 밝힐 수 있다면, 무엇이 그 발간과 비판에서 중요했는지를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자주 거론될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는 바로 그 해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기회 구조는 사회 운동(social movements)의 출현과 전략 등을 분석할 때 그 운동의 외부에 자리하는 제도적 환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¹⁸⁾ 이 개념을 굳이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듯하다. 기존에 주어진 질서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는 사회 운동이나 문화 변화나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많은 문화 연구들이 자신들의 연구에서 이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르디외의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그렇다.¹⁹⁾ 부르디외는 '68 혁명'의 반인

17) 클리퍼드 기어츠, 《문화의 해석》(서울: 까치, 1998), 제1장 참조.

18) 정치적 기회 구조에 대한 초기 연구자로 찰스 틸리(Charles Tilly)가 대표적이다. 그는 사회 운동의 발전과 전략, 그리고 영향력 등이 그 외적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8) 등을 참조.

19) Pierre Bourdieu, translated by Peter Collier, 《Homo Academicus》(Stanford,

문주의적 성격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당시 대학의 교수 수요가 크게 늘어났던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종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대학 입학생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로 인해 교수의 일자리 기회도 함께 늘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교수 사회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야기했다. 예전 같았으면 교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수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 교수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반인문주의적 학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교수진들이 구조주의나 바르트식의 기호학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부르디외는 그 논의에서 '기회 구조'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68 혁명'의 반인문주의적 경향을 당시의 교수 수요 증가와 관련시키는 지점은 기회 구조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개혁개방 시기의 모순에서 설명하려는 부분도 바로 그와 같은 기회 구조이다. 개혁개방 시기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당시 상황에서 어떤 기회 구조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기회 구조는 단순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변화'를 낳았던 그 기회 구조가 '통제' 역시 자극했다.

그런 점에서 기회 구조는 이중적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변화'일 수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통제'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기회 구조가 열리지 않는다면 주어진 질서 체계는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변화'나 '통제'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기회 구조가 열리게 되면 '변화'뿐만 아니라 '통제'도 함께 나타날 확률이 높다. 단순히 누군가가 'A'를 주장했기 때문에 'not A'를 주장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는 뜻이다. 뒤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이 기회 구조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개혁개방 시기에 문화적인 '변화'와 '통제'가 어떻게 동시에 촉진될 수 있었는지

가 이 기회 구조의 이중적 성격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3.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적 기회 구조

3.1 1979년 웨이징성의 《탐색》 발간

1970년대 말 등장했던 민간 출판물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중국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혹은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이다. 물론 《오늘》처럼 정치적인 경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 《오늘》조차 시작점에는 중국 문학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다.²⁰⁾ 그런데 그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는 민간 출판물마다 조금씩 달랐다. 가장 많이 달랐던 경우가 웨이징성의 《탐색》이었는데, 다른 민간 출판물들은 최소한 사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려 들지는 않았지만, 《탐색》은 '민주'와 '인권'의 기준으로 일체의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웨이징성은 《탐색》 제1기에 수록된 <다섯 번째 현대화>에서 사회주의가 중국 인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물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인민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면 자신의 노동성과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서 그 의무는 끝이 없었고 노동성과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에 불과했다. 사회주의가 보장한다고 했던 그 모든 권리들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웨이징성은 이를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라고 표현했고, 이러한 사회주의의 길은 인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²¹⁾

20) Cheng Yingxiang, 앞의 책, 92쪽 참조.

21) 魏京生, <第五個現代化 — 民主及其他>, 《中國民辦刊物彙編·第一卷》(華達編, 香港: 觀察家出版社, 1981), 50-58쪽.

제3기에 수록되어 있는 <20세기의 바스티유>에서도 웨이징성은 비슷한 논조를 이어갔다. 그는 그 글에서 이른바 ‘친청(秦城) 1호’라 불렀던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을 다뤘는데, 그곳에서 자행되었던 야만적인 고문이 바로 사회주의 중국의 통치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그 글의 말미에서 중국에는 “무산계급 독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름뿐인 무산계급 독재는 소수 독재자들이 무산계급을 향해 펼치는 독재의 수단”²²⁾이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그는 당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덩샤오핑마저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1979년 3월 민간 출판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전해지자 《탐색》은 <민주를 원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독재를 원하는가?>의 호의를 발행하였는데, 그 글에서 《탐색》의 편집인들은 덩샤오핑이 인민의 신뢰를 민주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보답한다고 분노했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식의 독재 사회주의로 나간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덩샤오핑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인민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단언했다.²³⁾

웨이징성의 이러한 논조는 당시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것이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베이징의 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오논단》이나 《옥토》와 같은 잡지들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긍정했다. 게다가 다른 민간 출판물들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앞서 언급했던 웨이징성의 <20세기 바스티유>는 《사오논단》에도 전채된 적 있는데, 《사오논단》의 편집인들은 본래 그 글에 있던 마오쩌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삭제했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피하려 했던 것이 당시 민간 출판물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웨이징성이 처음부터 《탐색》을 기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탐색》이 웨이징성의 사고가 발전하고 전

22) 魏京生, <20世紀的巴士底獄 — 秦城1號監獄>, 《中國民辦刊物彙編·第一卷》(華達 編, 香港: 觀察家出版社, 1981), 147쪽.

23) <要民主還是要新的獨裁?>, 《中國民辦刊物彙編·第一卷》(華達 編, 香港: 觀察家出版社, 1981), 161쪽.

과되는 데 핵심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탐색》과 같은 무대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탐색》을 함께 발행했던 루린(路林)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1979년 9월 《탐색》의 복간호를 내면서 이 잡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회고했다.

(1978년) 12월 5일 민주의 벽 서쪽 편에 <다섯 번째 현대화>라는 글이 붙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무수히 많은 논평을 불러왔다. 그 글은 매우 명확한 구조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민주화가 없으면 네 가지 현대화도 없다는 것이었다. (...) 그 글의 말미에는 저자가 남겨 놓은 연락 방법이 있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저자의 취지였다. 나와 양광(楊光) 등은 그 연락 방법으로 저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저자가 바로 《탐색》의 주편집인 웨이징성이었다. 나와 양광은 웨이징성을 만난 이후 국내 및 국제 형세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 결국 우리는 중국 사회가 낙후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편으로는 연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나아가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 싶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미 《사오논단》이나 《오늘》, 《옥토》와 같은 민간 출판물이 많이 등장해 있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우리의 민간 출판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²⁴⁾

이러한 루린의 기억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웨이징성을 비롯한 《탐색》의 편집인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다섯 번째 현대화>는 분명 민주의 벽에 붙었던 그 어떤 대자보보다 급진적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섯 번째 현대화>가 민주의 벽에 붙었던 첫 번째 대자보는 아니었다. 시단의 민주의 벽에는 이미 매우 많은 대자보들이 붙어 있었고, 웨이징성은 그 분위기에 힘입어 다른 대자보와 뚜렷이 구별되는 자신의 대자보를 내걸 수 있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탐색》의 출판을 결정하게 된 것도 이미 형성되어 있던 민간 출판물의 흐름을 고려한 결과였다. 루린이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베이징에는 이미 많은 민간 출판물이 발행되고 있었다. 만약 단순히 자신들의 글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탐색》의 편

24) 路林, <發刊與停刊 — 回憶參加《探索》工作的紀程>, 《中國民辦刊物彙編·第一卷》(華達編, 香港: 觀察家出版社, 1981), 182-183쪽.

집진들이 구태여 새로운 출판물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당시의 많은 민간 출판물들은 독자들의 투고 원고를 성심성의껏 신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새로운 출판물을 기획했다면, 이는 기존의 민간 출판물에서는 어려웠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민간 출판물의 유행 속에서, 《탐색》 편집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살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민간 출판물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가령 《오늘》을 편집했던 베이더오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민주의 벽'에서 비롯된 '분위기(l'atmosphère)'를 만끽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치적 긴장의 완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싶었고, 폐허와 다를 바 없던 중국 문학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것이 《오늘》과 다른 민간 출판물 사이의 가장 큰 차이였다고 지적했는데, 《오늘》은 자신들이 쌓아 놓은 이전 10년간의 작품을 대중에게 발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²⁵⁾

《사오논단》도 마찬가지였다. 《사오논단》의 편집인 중 한 명이었던 쉬원리(徐文立)는 《사오논단》이 등장하는 데 있어 1978년 말의 '민주의 벽'이 결정적이었음을 지적했다. 당시 '민주의 벽'에는 너무나 많은 대자보들이 붙어 있었고, 그 대자보들을 베이징의 겨울 날씨 속에서 일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자연스럽게 보존과 유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민주의 벽'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쉬원리 역시 '민주의 벽'에 있던 모든 대자보들을 보존하거나 유통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현대화'에 있었고, 이를 가로막는 중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있었다. '객관적인 경제 규율의 위반'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력의 발전을 무시한 채 생산관계의 문제에 천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오논단》은 이러한 그의 관심이 "거대한 변화의 전야"²⁶⁾에 결정(結

25) Cheng Yingxiang, 앞의 책, 92쪽.

26) Ou Pulei, <An Interview with Xu Wenli, Responsible Person of April 5th Forum, A Privately Run Publication in Beijing>, 《Chinese Law & Government》 Vol. 13 (1980), 133쪽.

晶)되어 나타났던 결과물이었다.

루린이가 이야기하였던 민간 출판물의 출현, 베이다오가 언급했던 ‘분위기’, 그리고 쉬원리가 묘사했던 ‘전야’는 모두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최초로 ‘민주의 벽’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중국공산당 내의 정치적 대립 때문이었다. 1978년 중국공산당 내에는 이른바 ‘범시파(凡是派)’와 ‘실천파(實踐派)’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그 중 ‘실천파’가 ‘민주의 벽’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단순히 태도와 가치 면에서 친연성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실제적인 협력이 존재했다. ‘민주의 벽’에 붙었던 첫 번째 대자보는 공산주의청년단의 기관지 《중국청년(中國青年)》의 복간호였는데, 그 배후에는 ‘실천파’를 이끌고 있던 후야오방(胡耀邦)이 있었다. 1978년 11월에는 11기 3중전회를 준비하기 위한 중앙공작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민주의 벽’에서 제기되던 주장들이 ‘실천파’의 중계 속에 그 회의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되었다.²⁷⁾ 《베이징의 봄》의 편집인 중 한 명이었던 왕쥘타오(王軍濤)는 당시 후야오방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덩샤오핑 역시 초기에는 ‘민주의 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978년 12월 ‘민주의 벽’에서 민주토론회가 개최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외국 기자가 ‘민주의 벽’을 덩샤오핑이 긍정한다고 전해주었던 것이다. 덩샤오핑과 후야오방 등의 ‘실천파’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민주의 벽’을 활용하고 있었다.²⁸⁾

이러한 상황은 당시 민간 출판물의 편집인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쉬원리는 1979년의 한 인터뷰에서 중공중앙이 《사오논단》 등의 민간 출판물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만약 중국공산당

27) 루안밍(阮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후야오방의 비서였던 평원빈(馮文彬)이 매일 시단(西單)에 가서 문서와 각종 정보를 가져오도록 시켰다. 그에 따라 시단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중앙공작회의에서 토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Cheng Yingxiang, 앞의 책, 40-43쪽 참조.

28) 루안밍은 1976년의 4·5 텐안먼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었지만, 1978년의 ‘민주의 벽’은 당내 개혁가들과 ‘민주의 벽’ 운동가 사이의 상호 작용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Cheng Yingxiang, 앞의 책, 59쪽 참조.

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민간 출판물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²⁹⁾ 했기 때문이었다. 베이더오 역시 당시 자신들이 《오늘》을 발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본적으로 덩샤오핑과 화궈핑 사이의 당내 경쟁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³⁰⁾ 《탐색》의 편집인들도 이와 비슷한 인식을 내비친 적 있는데, 루린은 자신들이 덩샤오핑을 비판하려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당내의 정치적 대립이었다고 고백했다. “당내의 ‘범시파’와 일련의 극좌분자들이 이(자신들의 비판)를 이용해 균중을 현혹시키고, 개혁과 정치 민주를 주장하는 당내 동지들에게 압력을 행사”³¹⁾ 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사실은 1970년대 말 민간 출판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웨이징성은 베이징 동물원의 전기 기사였고, 루린은 베이징의 한 공장에서 ‘모범 노동자’로 뽑히기도 했으며, 《탐색》의 다른 편집인이었던 류징성(劉京生)은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였다. 북간호의 발행을 적극 도왔던 자오난(趙南)도 당시에는 노동자 신분이었다. 양광만이 베이징공업대학의 학생이었을 뿐이다.³²⁾ 다른 민간 출판물의 편집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베이더오는 1969년부터 11년 동안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했고³³⁾, 《사오논단》의 쉰원리(徐文立)도 베이징의 철도역에서 일하고 있었다.³⁴⁾ 즉 1970년대 말 민간 출판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시 체제 내에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단순히 관방과 다른 정치적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글쓰기나 출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들이 민간 출판물을 발행하였을 때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출판물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베이더오는 《오늘》을 공식 잡지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봤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를

29) Ou Pulei, 앞의 책, 144쪽.

30) Cheng Yingxiang, 앞의 책, 89쪽.

31) 路林, 앞의 책, 186쪽 참조. 괄호 안 설명은 필자.

32) 華達 編, 《中國民辦刊物彙編·第一卷》(香港: 觀察家出版社, 1981), 33-43쪽.

33) Cheng Yingxiang, 앞의 책, 90쪽.

34) Ou Pulei, 앞의 책, 132쪽.

찾아갔던 것도 수차례에 달했다.³⁵⁾ 쉬원리는 아예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고 자청했다.³⁶⁾ 반면 《탐색》의 편집인들은 시장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다. 다른 민간 출판물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탐색》을 판매하였고, 그 발행 부수도 꾸준히 늘렸다. 심지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웨이징성은 텐진으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다.³⁷⁾ 어쩌면 《탐색》이 그 급진적인 경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편집인들이 처음부터 시장에서 자신들의 활로를 찾으려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정리해보면, 1970년대 말 《탐색》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편집인들이 당시 '민주의 벽'에서 비롯되었던 분위기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노동자 신분이었고, 따라서 기존 체제 내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자리가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중국공산당 내에는 '범시파'와 '실천파' 사이의 정치적 대립관계가 형성되었고, 이 대립이 일시적으로나마 '민주의 벽'과 같은,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이 공간에 많은 민간 출판물들이 진입하였고, 그 분위기 속에서 《탐색》도 발행되었다. 그 환경이 아니었다면, 웨이징성 그룹이 《탐색》을 발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웨이징성의 그 급진적인 견해 역시 마찬가지로 빛을 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3.2 1981년 바이화의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

1979년 9월 《시월(十月)》에 발표된 바이화의 시나리오 <슬픈 사랑>은 화가 링천광(凌晨光)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신중국 이전에 태어난 링천광은 비록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탁월한 재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국민당은 그를 징용하려 하였고, 이 때 그는 뱃사공의 딸이었던 루양(綠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

35) Cheng Yingxiang, 앞의 책, 94쪽.

36) Ou Pulei, 앞의 책, 141쪽.

37) 華達 編, 앞의 책, 35쪽.

이 인연이 되어 그 둘은 서로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결국 링천광은 국민당 특무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는 해외로 도망을 쳤다. 해외에서 유명한 화가가 된 링천광은 뤼냥을 불러들였고, 신중국이 성립되자 링천광 부부는 귀국을 선택했다. 그들이 탄 기선이 중국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싱싱(星星)이라는 딸아이를 낳았다. 링천광 가족은 한동안 행복한 삶을 누렸지만, 곧 문혁이 발발하였고, 그들에게 시련이 닥쳤다. 온 가족이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방에 살아야했고, 링천광은 한껏 두들겨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곤 했다. 싱싱은 더 이상 중국에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남자 친구와 함께 해외로 도망하려 하였다. 링천광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싱싱은 링천광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이토록 괴롭게 사랑하는데, 이 나라는 아버지를 사랑하나요?” 이후 링천광은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쳤고, 그는 그곳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았다. 눈이 그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음을 깨달으면서 눈발에 커다란 물음표를 남겼다.³⁸⁾

바이화의 이 시나리오는 1980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함께 시나리오를 작업했던 평닝(彭寧)이 감독을 맡았고, 제목은 《태양과 인간(太陽和人)》으로 수정되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완성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 운동이 일어났다. 그 시작은 1981년 3월에 있었던 덩샤오핑의 담화였는데, 덩샤오핑은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인사들과의 담화에서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을 여덟 번째 사안으로 거론했다. “시나리오 <슬픈 사랑>을 비판해야 한다. 이는 네 가지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비판을 할 때에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평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³⁹⁾

이후 1981년 4월 17일자 《해방군보》에 <네 가지 기본원칙의 견지와 수호>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주로 다뤘

38) 白樺, <苦戀>, 《白樺文集·卷四》(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9), 289-365쪽; 백화 지음, 권덕주 옮김, 《작사랑》(서울: 문조사, 1987).

39) 鄧小平, <關於反對錯誤思想傾向問題>, 《鄧小平文選·第二卷》(北京: 人民出版社, 1994), 382쪽.

지만, 그 글의 1/3 이상이 문예계의 문제였고, 이는 상당 부분 바이화의 <슬픈 사랑>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해방군보》의 독자 투고란에 <슬픈 사랑>을 비판하는 편지가 등장했다. <슬픈 사랑>이 당 중앙의 네 가지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이상, 모든 간행물이 비판 운동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무엇이 네 가지 기본원칙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네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수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⁰⁾ 급기야 4월 20일자 《해방군보》에는 ‘본보 특약 평론원’의 명의로 <네 가지 기본원칙은 위반을 용납지 않는다.>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그 제목 아래에는 ‘시나리오 <슬픈 사랑>을 평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이후 전국의 많은 일간지와 잡지들이 이 ‘특약 평론원’의 글을 실었다. 특히 황강(黃綱)이 편집하던 《시대의 보고(時代的報告)》가 유별났는데, 그 ‘해방군보 특약 평론원’의 글을 전재했을 뿐 아니라, 황강 자신이 직접 쓴 <이는 어떤 종류의 ‘영화 시인가?’>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아예 시나리오를 통째로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데 사실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 열기는 당시에 그다지 뜨거운 편이 아니었다. 상하이의 《문화보》처럼 이 비판에 가담하지 않은 기관지도 있었고⁴¹⁾, 무엇보다 《인민일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문예보》나 《신관찰》과 같은 잡지들은 바이화를 두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던 그 때, 《신관찰》은 도리어 바이화에게 다른 원고를 부탁했기 때문이다.⁴²⁾

이러한 비판 운동이 한층 뜨거워진 것은 1981년 7월 17일에 있었던 덩샤오핑의 담화 때문이었다. 그는 왕런중(王任重) 등의 중공중앙 선전부 간부들을 불러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시했다. 그 요지는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을 《해방군보》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문예계가 직접

40) 徐慶全, <《苦戀》風波始末>, 《白樺研究》(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15), 247-248쪽.

41) 이에 대해서는 馬達, <<文匯報>拒絕轉載批判《苦戀》文章內情>, 《書摘》 第7期 (2005)를 참조.

42) 徐慶全, 앞의 책, 249쪽.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방군보》의 글 중 어떤 표현들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예보》 쪽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슬픈 사랑>을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해방군보》는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대신 그 비판은 문예계 전체로 확대되었다.

1981년 8월 3일, 중공중앙은 300여 명에 달하는 문예계 인사들을 '사상선 선좌담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야오팡은 덩샤오핑의 그 중요 담화를 전달하면서 사상 문예계가 비판과 자기비판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바이화의 작품 중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슬픈 사랑>은 인민에게도 해가 되고 사회주의에도 해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비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8월 8일 회의에서는 후차오무(胡喬木)가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을 요구했다. 그는 세 시간이 넘는 연설에서 여러 번 <슬픈 사랑>의 착오를 언급했고, 이를 주도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문예계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슬픈 사랑>처럼 정치적 착오가 명확한 경우에도, 우리 문예계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영화까지 제작된 것입니다."⁴³⁾ 나아가 8월 25일의 폐막식에서는 당시 중앙선전부 부장이었던 왕런중이 자기비판을 진행했다. 우선 문예계가 주도적으로 <슬픈 사랑>에 대해 비판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고, 그 다음으로 <슬픈 사랑>이 영화로 제작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제작을 말렸음에도, 심지어 자신조차 "수정이 없으면 찍지 말 것"을 주문했음에도, 어떤 수정도 없이 제작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좌담회가 종료된 이후, 《문예보》에는 탕다칭(唐達成)과 탕인(唐因)이 공동 집필한 <'슬픈 사랑'의 착오 경향을 논함>이 실렸다. 덩샤오핑의 요구에 따라 문예계가 직접 <슬픈 사랑> 비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이 10월 7일자 《인민일보》에 게재되면서 중공중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명확해졌다. 한편 바이화는 자기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했고, 편지 형식으로 자기검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 이후에야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

43) 胡喬木, <當前思想戰線的若干問題>, 《紅旗》 第23期(1981).

수 있었다.

이 비판의 과정을 여기서 조금 길게 살펴본 것은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음을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예를 들어, <슬픈 사랑>이 《태양과 인간》으로 제작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영화는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일반 인민들은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었다. 당내 일부 고위 인사들만이 제한된 환경에서 볼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에서는 영화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판의 시작 자체가 <슬픈 사랑>이 아니라 《태양과 인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반 인민들이 영화에 접근할 수 없었다면, <슬픈 사랑>의 존재 자체가 안 알려졌을 확률이 높았다. 구태여 <슬픈 사랑>을 세간의 이슈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덩샤오핑의 담화 역시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위의 비판 과정에서 그의 담화는 두 번 등장하는데, 둘 다 모두 전체 비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번은 비판의 시작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전체 문예계로의 확산이었는데, 두 번 모두에서 어떤 인위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첫 번째 담화의 경우, 덩샤오핑은 최초로 어떻게 해서 <슬픈 사랑>의 존재를 알았을까? 그가 직접 그 작품을 읽었을 리 없다면, 왜 하필 《태양과 인간》이 등장했을 때 그에게 <슬픈 사랑>의 존재가 전해졌을까? 나아가 그는 왜 두 번째 담화를 내놓았을까? <슬픈 사랑>에 대해 그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첫 번째 담화에 그 문제점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을까?

<슬픈 사랑> 비판이 다양한 지점에서 그 이전의 정치적 사건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짚짚한 부분이다. 황강이 썼던 <이는 어떤 종류의 '영화 시'인가?>에서 1957년의 《인민일보》 사설 <이는 무엇 때문인가?>를 떠올렸다면 지나치게 민감한 것일까? 《해방군보》의 '특약 평론원'에서 1978년 《광명일보》의 '특약 평론원'을 떠올렸다면? 혹은 <슬픈 사랑>이 <해서과관>을 생각나게 한다면? 실제로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은 <슬픈 사랑> 비판에서 1950년대, 혹은 문화대혁명 전야와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들이 비판 초

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두려움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반감과 분노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⁴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슬픈 사랑>의 비판 과정이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슬픈 사랑>이 아니라 《태양과 인간》이 비판의 계기가 되었던 것, 비판의 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덩샤오핑의 담화가 등장했던 것, 그리고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이 이전의 반우파나 문혁, 진리표준토론을 상기키는 것 등은 모두 그 비판이 그렇게 의도되었기 때문이다.

최초 그 비판의 시작부터가 그러했다. 1980년 《태양과 인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영화는 당 지부의 검열조차 통과 못한 상황이었다. 바이화는 낙담했고, 추후 지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바이화와 평닝은 영화가 협회를 찾아가 전문 영화인에게 자신들의 영화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최소한 전문 영화인들에게 보여주어 작품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듣고 싶었다. 실제로 시사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인간》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문련(文聯) 부주석 린모한(林默涵)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영화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조수였던 류바이위(劉白羽)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 영화를 하나의 기회로 삼도록 했다. 린모한의 연락을 받은 류바이위는 군 고위 간부들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베이징에서는 인민해방군 회의가 개최 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관에게 부탁해 영화의 복사본을 얻었고(검열 통과가 안 된 영화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이었던 웨이귀칭(韋國淸)의 승인 아래 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시사회를 개최했다. 류바이위는 영화를 시청한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그에 대한 코멘트를 수집했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인민해방군 중앙정치부 자료로 남겼다. 바로 이 때부터 웨이귀칭이 <슬픈 사랑> 비판을 이끌게 되었다.

44) 賈植芳·任敏, 《解凍時節》(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0), 350쪽 참조.

웨이귀칭은 이후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을 진행했다. 때로는 직접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해방군보》와 같은 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덩샤오핑의 승인을 이끌어 낸 것이다. 바이화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덩샤오핑이 웨이귀칭으로부터 <슬픈 사랑>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비판의 필요성을 되물었다고 한다. 《태양과 사람》은 검열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일반 인민들은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는데, 굳이 비판할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웨이귀칭은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이며, 그 시나리오는 이미 출판된 지 1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본원칙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다.⁴⁵⁾ 덩샤오핑의 첫 번째 담화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두 번째 담화 역시 웨이귀칭의 기획 아래 만들어졌다. 바이화는 그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웨이귀칭과 그의 동료들은 덩샤오핑이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작한 자료집이 있었어요. 그 영화를 싫어하게끔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요. 그 자료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물론 <슬픈 사랑>을 비판하는 글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덩샤오핑에 반대하는 “관점”의 각종 자료들도 있었어요. 그 자료들은 중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요. 이는 일종의 병치(juxtaposition) 효과였는데, 마치 <슬픈 사랑>이 그 자료들과 동일한 것인 양 만든 겁니다. 그런데 <슬픈 사랑>은 그것들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중앙군사위원회의 그 자료집에 현혹된 데다가, 일반적인 관람자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시간 구성이 더해지고, 영화를 보는 내내 경멸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오니, 영화가 끝났을 때 덩샤오핑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나? 이 영화의 승인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⁴⁶⁾

위 인용문이 언급하고 있는 자료집은 덩샤오핑 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두 번

45) Cheng Yingxiang, 앞의 책, 129쪽 참조.

46) Cheng Yingxiang, 앞의 책, 129-130쪽.

책 담화를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슬픈 사랑>의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자신이 최근에 본 자료가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베이징 사범대학의 한 한생이 당 조직의 사상정치공작을 전부 허풍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는 1957년과 같은 반사회주의적인 경향마저 나타났다고 하였다. 덩샤오핑은 <슬픈 사랑>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즉 <슬픈 사랑>이 그 착오적인 사상 경향을 대표한다고 본 것이다. 덩샤오핑은 격분했고, 중앙 선전부 간부들을 불러 사상전선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⁴⁷⁾

웨이귀칭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왜 그토록 <슬픈 사랑> 비판에 집착했던 것일까? 바이화조차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상, 그에 대한 의문은 잠시 미제로 남겨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당시 당내 정치적 대립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1980년 겨울 중앙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을 때, 당시 《인민일보》의 특파원으로 참석했던 류빈옌(劉賓雁)은 보수파와 개혁파의 정치적 대립이 그 자리에서 표출되었다고 밝혔다. 보수파의 고위 간부들이 우주광(吳祖光)이나 바이화 등을 거론하면서 일부 지식인들이 혼란을 일으킨다고 질타하였던 것이다. 지방 당 위원회의 간부들 중에는 “지식인들이 멋대로 떠드는 바람에 일이 엉망진창”이라고 푸념하는 이도 있었다.⁴⁸⁾

그런 점에서 <슬픈 사랑> 비판을 주로 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에 《태양과 인간》을 군 고위 인사에게 보여주었던 이가 군 소속의 류바이위였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던 매체가 바로 인민해방군의 기관지 《해방군보》였다. 심지어 덩샤오핑의 담화는 모두 군대와 관련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웨이귀칭을 비롯한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간부들과의 담화에서 이뤄졌고, 두 번째는 웨이귀칭이 덩샤오핑에게 《태양과 인간》을 보여준 직후에 이뤄졌다. 중요한 사실은 1978년 진리표준토론에서 가장 저항하였던 세

47) 鄧小平, <關於思想戰線上的問題的談話>, 《鄧小平文選·第二卷》(北京: 人民出版社, 1994), 390쪽.

48) Cheng Yingxiang, 앞의 책, 117쪽.

력이 바로 군대라는 점이다. 1979년 5월 21일자 《해방군보》는 많은 군부대가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1/3 이상의 군인들은 3중전회 정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군대는 여전히 마오쩌둥의 정치적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⁴⁹⁾

이러한 당내 정치적 대립은 <슬픈 사랑>의 비판 과정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린모한과 류바이위는 문예계 내에서 다른 입장에 서 있었다. 모두가 《태양과 인간》의 수정과 편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다른 문예계 인사들의 화를 돋웠다.⁵⁰⁾ 후야오방은 바이화가 《태양과 인간》의 관람을 요청했을 때 검열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이화는 그것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후야오방의 조심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⁵¹⁾ 심지어 린모한은 아예 직접적으로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태양과 인간》을 관람한 후 류바이위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다. “됐다! 틈을 찾았다!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겠다!”⁵²⁾

그렇다면 <슬픈 사랑>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당내 정치적 대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당내에는 여전히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대립이 있었고, 주지하다시피 후야오방 등의 개혁파는 지식인 그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바이화의 <슬픈 사랑>이 영화 《태양과 인간》으로 제작되었고, 웨이귀칭과 그의 동료들은 이를 일종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⁵³⁾ 그러나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개인적인 원한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들을 이끌

49) 蕭冬連, 《中華人民共和國史·第10卷·曆史的轉軌—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1979-1981)》(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8), 194-204쪽; 예즈라 보걸, 《덩샤오핑 평전》(서울: 민음사, 2014), 12장 참조.

50) 張光年, 《文壇回春記事·上》(深圳: 海天出版社, 1998), 224쪽.

51) Cheng Yingxiang, 앞의 책, 122-123쪽.

52) Cheng Yingxiang, 앞의 책, 119쪽.

53) 웨이귀칭 등의 군 인사와 바이화 사이에는 개혁개방 직후부터 몇 가지 사건 등으로 인해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인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에 대해서는 Cheng Yingxiang의 인터뷰 자료를 참조.

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애국심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슬픈 사랑>과 《태양과 인간》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는 데 적극 활용하였다는 것은 명확하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웨이징성이 《탐색》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나 바이화의 <슬픈 사랑>이 당내 비판 운동에 휩싸였던 것은 모두 그 중심인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일종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탐색》의 경우, 웨이징성 등은 '민주의 벽'에서 비롯되었던 대자보와 민간출판물의 분위기를 자신들의 급진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슬픈 사랑>의 경우에는 웨이귀칭 등이 영화 《태양과 인간》의 제작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는데 활용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은 모두 당시의 당내 정치적 대립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민주의 벽'에 대자보가 나붙고 민간 출판물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실천파'와 '범시파'가 당내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슬픈 사랑>과 《태양과 인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거의 모든 문예계 인사가 공감하는 바였지만, 유독 특정 세력만이 이를 편집이나 수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판 운동으로 이어가려 했다. 당내 정치적 대립에 기초하였던 그 기회 구조가 《탐색》의 '변화'와 <슬픈 사랑> 비판의 '통제'를 자극했다.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적인 '변화'와 '통제'를 이와 같은 당내 정치적 대립으로 풀게 되면 혹 환원론으로 비취질 수 있다. '문화'의 문제를 결국 '정치'의 문제로 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론에서 '문화'는 '정치'에 종속된 것이 되고,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정치를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상황에서 '문화'와 '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대단

히 어렵다.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 국가가 개인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정치'였다.⁵⁴⁾ 상금이나 벌금, 사유 재산 등의 제도가 부정된 데에다 공통의 종교마저 거부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을 동원하려면 '정치'를 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때의 정치는 문화와 그 층위가 겹치게 된다. 누군가의 정치적인 태도와 입장은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곧 문화의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시장 기제가 확립되지 못했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상황에서 '정치'와 '문화'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정치'와 '문화' 사이의 불가분성을 '정치가 곧 문화'라는 식의 결정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치'의 위상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당대 중국에서도 이 '문화적 기회 구조'는 여전히 유효할까? 개혁개방 시기의 '문화적 기회 구조'가 기본적으로 '정치'와 관련되어 있었다면, 당대 중국에서 그것은 '시장'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선율'의 경우처럼 '문화'가 여전히 정치와 일정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의 비중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문화적 기회 구조'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일 수 있다. 시장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문화의 '변화'나 '통제'가 나타나기 쉽지 않지만, 시장질서에 틈이 발생하면 그 주체들이 이를 기회 구조를 인식하고 '변화'와 '통제'를 시도할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소비 집단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는 이를 기회로 인식해 그에 부합하는 문화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더 많은 자본을 들여와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 들 수 있다. '시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뿐, 문화의 '변화'와 '통제'에서 이 '문화적 기회 구조'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일 수 있다.

54)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한사오궁, 《혁명후기》(파주: 글항아리, 2016), 7장을 참조.

< 參考文獻 >

- 김도경, <1970년대 말 천얼진의 '무산계급 민주혁명을 논함'의 담론 맥락>, 《중국현대문학》 66호, 2013.
- 김은수, <개혁개방 초기(1979-1982) 중국 공산당의 부르주아 자유화 논쟁>, 《역사와담론》 84호, 2017.
- 데이비드 블루어 저, 김경만 역, 《지식과 사회의 상》, 파주: 한길사, 2000.
- 백화 저, 권덕주 역, 《작사랑 외》, 서울: 문조사, 1987.
-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 심혜영, <중국의 80년대 초기 휴머니즘론 - 왕루어웨이(王若水)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34호, 2000.
- 안치영, <1978년 진리표준 토론과 그 정치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제13권 1호, 2004.
- 에즈라 보걸 저, 심규호·유소영 역, 《덩샤오핑 평전》, 서울: 민음사, 2014.
- 이주현, <後文革시대(1977~1984)의 중국현대미술: 星星畫會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호, 2010.
- 조영남, 《개혁과 개방 I》, 서울: 민음사, 2016.
- 클리퍼드 기어츠 저,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1998.
- 한사오궁 저, 백지운 역, 《혁명후기》, 파주: 글항아리, 2016.
-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1978.
- Chen Fong-ching & Jin Guantao, 《From Youthful Manuscripts to River Elegy》, Hong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97.
- Pierre Bourdieu, translated by Peter Collier, 《Homo Academicu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Ou Pulei, <An Interview with Xu Wenli, Responsible Person of April 5th Forum, A Privately Run Publication in Beijing>, 《Chinese Law & Government》 Vol. 13, 1980.
- Cheng Yingxiang, 《Dégel de l'intelligence en Chine, 1976-1989》, Editions Gallimard, 2004.
- 白樺, 《白樺文集·卷四》,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9.
- 陳來, 《八十年代文化意識》,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6.

- 鄧小平,《鄧小平文選·第2卷》,北京:人民出版社,1994.
- 鄧正來,〈市民社會與國家知識治理制度的重構—民間傳播機制的生長及其作用〉,《開放時代》2000年 第3期.
- 高阜,《後文革史》,臺北:聯經出版公司,1999.
- 胡喬木,〈當前思想戰線的若干問題〉,《紅旗》1981年 第23期.
- 華達 編,《中國民辦刊物彙編·第一卷》,香港:觀察家出版社,1981.
- 賈植芳·任敏,《解凍時節》,武漢:長江文藝出版社,2000.
- 劉青峰,〈二十世紀中國科學主義的兩次興起〉,《二十一世紀》(香港)1991年 4月號.
- 馬達,〈《文匯報》拒絕轉載批判《苦戀》文章內情〉,《書摘》2005年 第7期.
- 若水,〈爲人道主義辯護〉,《新華文摘》1983年 第3期.
- 沈寶祥,《真理標準問題討論始末》,北京:中共黨史出版社,2008.
- 蕭冬連,《中華人民共和國史·第10卷·歷史的轉軌—從騷亂反正到改革開放(1979-1981)》,香港:香港中文大學出版社,2008.
- 徐慶全,〈《苦戀》風波始末〉,《白樺研究》,開封:河南大學出版社,2015.
- 張光年,《文壇回春記事·上》,深圳:海天出版社,1998.

< Abstract >

Cultural Opportunity Structure in China's Reform and Opening Period:
Focusing on Wei Jingsheng(魏京生)'s 《Tansuo(探索)》 and Baihua(白樺)'s
<Bitter Love(苦戀)>

Kim, Dokyung

During China's reform and opening period(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there was "cultural change", but also "ideological control". How could "change" and "control" coexist in the same time? Faced with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this paper elaborates how Wei Jingsheng(魏京生) could publish 《Tansuo(探索)》, the most radical magazine in the late 1970's and how the campaign of

criticizing the <Bitter Love(苦戀)>, a scenario written by Baihua(白樺), could emerge in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1981. This paper argues that the “opportunity structure”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emergence of the radical publi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ideological campaign. Wei Jingsheng was able to publish 《Tansuo》 because there was a competition between “whateverists(凡是派)” and “Practitioners(實踐派)”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a group of senior military figure was able to propel the campaign of criticizing <Bitter Love> because there was a conflict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oth took advantage of “opportunity structure” in order to make a political voice and to strengthen their position.

Key words: Wei Jingsheng(魏京生), 《Tansuo(探索)》, Baihua(白樺), <Bitter Love(苦戀)>, Cultural Opportunity Structure, China's Reform and Opening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18.	2018. 3. 9	2018. 3. 14.	2018. 3. 20.	2018. 3. 31.

